

초등무용교육의 전망과 과제*

서 예 원**

I. 서론

II. 예술교육의 필요성

III. 초등무용교육 현황

IV. 초등무용교육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21세기 교육의 모토는 ‘창의’, ‘인성’이며 이는 모든 정책, 문화, 교육현장에서 핵심 가치로 표명되어 왔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¹⁾

이 방안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10.5.25~28, 서울)개최 등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양 부처가 협력하여 ‘유네스코 서울선언

* 본 논문은 한국초등교육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ywsuh84@hanmail.net.

1)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10. 7.

(Seoul Agenda)'에 대한 실천과 창의·인성 함양의 핵심 분야인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에서는 주지 교과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서 예술 교과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교 예술교육의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공교육 현장에서 예술교육이 점차 소외되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예술과목이 수능과목에 밀려 기피과목으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과정 예술교과에는 음악, 미술만이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스럽게 공교육 안에서 예술은 음악, 미술 뿐이라고 교육받고 있는 셈이다.²⁾

이렇듯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무용교육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은 무용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초등무용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김남은(2011), 김미경(2011), 송진아(2012), 서예원(2009), 김화숙(2004)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의 주요점은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 비교 또는 조사연구를 통해 공교육에서의 무용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무용교과 독립의 필요성과 무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제고, 무용교육 자료의 개발, 다양한 무용연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무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무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2007개정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표준에서의 무용교육 기준과 외국의 무용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교육에서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가치와 역할

2) 김화숙 외(2010), 『무용교육의 힘』(서울: 댄스뷰), p. 93.

을 탐색하고, 무용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무용교육과정 및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무용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예술교육의 필요성

1. 예술교육의 가치

현대사회는 지식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암흑기를 맞고 있다. 지식의 전문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은 파편화되고 있다.³⁾ 이제는 이성적 논리의 정립과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던 시대를 지나 창의력, 상상력, 직관, 감성의 중요성이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창의성은 왜 필요한가? 창의성에 대해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러시아 형식주의 선구자인 쉬클로브스키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창작의 진정한 목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낯설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⁴⁾이라고 정의한다.

즉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너무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 때 느끼는 감동이 최고의 미학적 경험이다. 일상의 ‘낯설게 하기’를 통해 이뤄지는 창조적인 미학적 경험들과 그로 인한 감동이 예술과 같은 창의적 작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창의적 이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이유이다. 박현웅은 창의성의 원천이 일상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일상을 깊이있게,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

3) 루트벤스타인(1999), 『생각의 탄생』 박종성(역)(서울: 예코의 서재, 2007), p. 5.

4) 김정운(2011), 『노는만큼 성공한다』(서울: 21세기 북스), p. 100, 재인용.

한다. 그는 창의성과 감동의 관계를 러스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존 러스킨은 나뭇잎을 봤다면 나뭇잎의 균형감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뒷면의 촉감이 어떻게 다르고, 끝부분은 어떤 모양이고, 햇살이 떨어진 각도에 따라 나뭇잎의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볼 줄 알면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성은 훈련이 필요한데, 유흥준은 ‘문화와 예술미는 훈련한 만큼 보인다’⁵⁾라고 훈련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을 얻기 위한 훈련은 예술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낮설게 바라보기’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을 낮설게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감동의 순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감각과 표현의 근본 원리는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예술은 교육을 통해 경험되고 그림으로써 풍부한 미적경험과 감수성을 가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학교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스너(Eisner)는 학생들이 과학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예술적 시야로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 세계의 실체를 바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내면적인 경험과 상상을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을 ‘표현형식’이라고 보았으며, 다양한 유형의 표현형식들은 세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표현형식들을 통하여 다양한 의식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예술교육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예술 그 자체의 창작과 감상 그리고 기예를 가르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예술적 정신이나 기법이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포괄하는 미적 체험을 통한 인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⁷⁾ 전자가 예술 그 자체를 가르치는 데

5) 박웅현(2011), 『책은 도끼다』(서울: 북하우스), p. 49, 재인용.

6) 황연주 외(2004),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 14, 재인용.

에 목적을 두는 ‘예술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예술교육은 감수성이나 인간성 함양 등에 목적을 두는 ‘예술을 통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예술교육은 기능개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상상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교육 안에서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술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삶의 소중한 보석으로서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며 더불어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예술교육은 지식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시민 정신의 문화적 접근으로 활용⁸⁾되고 있다.

2. 초등무용교육의 가치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음악이 악기나 음성으로, 미술이 그림이나 조각으로, 시나 소설이 글로써 자신을 표현한다면 무용은 신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어떤 분야보다도 무용은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은 모태어이며 근원적인 사고’라고 한 한나(Hanna)⁹⁾의 지적대로 무용은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표현방법이다.

콜링우드(Collingwood)는 예술은 ‘인간의 정서 표현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에서 느끼는 정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언어, 소리, 색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¹⁰⁾

도블러(Doubler)는 모든 예술형식 가운데 개성을 완성시키는 일에 특히 적합한 것이 바로 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그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된 인간이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똑같이 중시하고 발달시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7) 앞의 책, p. 12.

8) 김화숙 외(2010), 『무용교육의 힘』(서울: 댄스뷰), p. 92.

9) Hanna(2001), The Language of Dance, 『JOPERD』, Vol. 72 No.4, p. 40.

10) 황연주 외(2004), p. 14, 재인용.

11) 마가렛 도블러(1964), 『창조적 경험으로서의 춤』, 성미숙(역)(서울: 현대미술사, 1994), p. 74.

한 정서적으로 통합된 인간을 말하며 무용은 이러한 개인 성장을 위한 모든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의 교육적 가치는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창의적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에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가장 큰 시기인 초등학교 시기의 무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퍼셀(Theresa M. Purcell)은 아동기의 무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²⁾

무용은 자신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으로 각 활동들을 통합하고 있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낀다. 다른 교과 영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표현의 수단인 움직임은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무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역사, 음악, 미술, 국어, 과학, 사회와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다.

또한 Literacy Arts Task Force Report는 다음과 같이 무용을 설명한다. ‘인간이 시작한 어떤 다른 행위보다도 매우 근원적인 면에서 무용만큼 자기 자신을 창조하기 좋은 도구는 없을 것이다. 자기 창조의 경험을 우리의 모든 아동들에게 길러져야 하고, 아마 우리가 무용이라고 부르는 언어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성취될 것이다.’¹³⁾

그러므로 초등학교교육현장에서 무용교육은 신체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이 된다. 또한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통합된 인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개성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 테레사 퍼셀(1994), 『어린이들을 위한 무용교육』, 김두련(역)(서울: 금광, 2001), p. 14.

13) 앞의 책 p. 22, 재인용.

III. 초등무용교육 현황

1. 한국의 무용교육과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무용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1-2학년은 예체능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 교과로, 3-6학년은 체육과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체육과의 영역은 건강, 표현, 도전, 경쟁, 여가 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무용은 '표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다.

가. 1-2학년 : '즐거운 생활' 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교과이다. 이 교과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과 표현 활동 등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¹⁴⁾

통합의 방법은 '주제중심 통합'의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나비'라는 주제로 움직임으로 표현해보고, 노래를 불러보고, 나비를 그림이나 미술매체로 만들어 보는 활동들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구성에 있어서도 학년별로 대주제와 활동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1학년은 가족과 친구, 동물과 식물, 산과 들, 하늘과 바다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14개의 활동 주제로 구성하였다. 2학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16개의 활동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교과목의 목표는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목표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 (2)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14)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3)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작품과 생활문화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 3-6학년 : 체육과의 표현활동 영역

체육과 영역 중 하나인 표현 활동은 생각과 느낌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말한다. 표현 활동의 내용은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및 창작 표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움직임 표현은 모든 움직임 표현의 기초가 되는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리듬 표현은 여러 가지 스포츠와 무용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듬 유형과 특성에 관한 즉흥 표현과 감상, 리듬 체조 등의 표현 방법과 감상을 포함하며, 민속 표현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족성을 담고 있는 움직임 표현 형태를 포함한다. 주제와 창작 표현은 신체 움직임의 정형화된 형식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신체 활동에 초점을 둔다.¹⁵⁾

초등학교에서는 표현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움직임 표현에서 주제 표현까지 모든 표현 과정을 포함하며, 학년별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와같이 초등학교에서 무용은 3-6학년까지 체육교과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¹⁶⁾

첫째, 무용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표현하기'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다.

<표 1> 3-6학년별 표현활동 내용

학년	중영역	세부영역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
3	움직임 표현	움직임 표현	•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등 • 신체, 공간, 시간, 에너지, 관계 등의 요소에 따른 움직임
4	리듬 표현	리듬 표현	즉흥 표현, 리듬 체조, 음악 줄넘기 등
5	민속 표현	민속 표현	우리나라 민속 무용, 외국의 민속 무용 등
6	주제 표현	주제 표현	꾸미기 체조, 창작 무용 등

15) 교육인적자원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체육』, pp. 52-101.

16) 서예원, 김윤진, 문영, 조은숙(2011). 『문화예술교육 표준 개발 연구-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 43.

이 ‘표현하기’는 초등학교에서 무용이 ‘움직임을 통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표현’이라는 개념적 정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표현하기’ 영역은 각 학년별로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표현의 대상을 중심으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움직임 표현, 리듬표현, 민속표현, 주제표현, 심미표현과 창작, 현대표현과 창작, 전통표현과 창작, 움직임예술과 창작 등).

둘째, 학년별 내용을 보면 각 학년별 무용 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주요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학년별 목표는 춤추고, 창작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측면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목표나 내용에서 무용교육의 중요한 가치이자 역할인 ‘소통’의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교육과정이나 타교육 영역간의 연계성이나 지역사회나 평생학습의 가능성도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학년별 영역이나 목표,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심화되거나 수준별로 제시되기보다는 각각의 내용과 기준들이 독립적으로 제시가 가능해서, 학년별 영역, 목표의 연계성은 있으나 계열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무용교육 기준의 개발¹⁷⁾

공교육에서의 무용교육과정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각 분야 예술영역과 함께 무용교육표준이 연구, 개발 되었다.

무용교육표준은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계발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뜻한다.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능력을 의미한다. 즉 무용을 체험하고,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 종합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무용교육표준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댄스 리터러시는 다양한 춤움직임 속의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17) 201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사업으로 각 예술 영역의 교육표준이 개발되었다. 이에 무용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표준 개발 연구-무용’이 연구, 개발되었다.

자신을 표현하는 움직임은 창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용의 미를 분석, 이해, 감상, 비판하는 총체적인 ‘무용알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표준은 실행, 창작, 감상, 소통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실행(춤추기)은 신체 지각, 협응, 움직임의 요소 이해, 수행원리 습득 등과 관련되며, 창작(춤만들기)은 움직임 창안, 동작 구성, 표현, 창작원리 이해 등과 관련된다. 감상(춤읽기)은 관찰, 분석, 해석, 작품이해 등과 관련되며, 소통(춤나누기)은 타 영역과의 교류, 통합, 공유, 사회문화적 의미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무용교육표준의 영역들은 학습내용과 방법에 따라 심화, 발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체험/이해 - 탐구/발견 - 확장/응용의 3단계를 거쳐 문화예술 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댄스 리터러시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체험/이해는 감각을 통한 움직임 체험과 인지적 이해의 단계이며, 탐구/발견 단계는 체험/이해의 단계를 심화·발전시켜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비교·분석하는 단계이다. 확장/응용의 단계는 탐구/발견의 단계를 심화·발전시켜 타 분야, 타 예술과 연계·통합하여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무용교육표준은 연령별, 교급별로 목표와 기대수준(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의 교육표준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2. 외국의 무용교육과정

현재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예술교육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뱀포드의 세계 37개국 예술교육 사례연구 <표 2> 초등학교 5-6학년 무용교육 표준¹⁸⁾

단계	영역	목표	수준	기대수준
3 level (초등5-6 학년만 11-12세)	실행	다양한 양식의 무용 동작을 할 수 있다.	체험/이해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인지하고 움직일 수 있다.
			탐구/발견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며 춤출 수 있다.
			확장/응용	다양한 양식의 무용 움직임을 할 수 있다.

18) 서예원 외(2011), p. 16.

〈표 2〉 계속

단계	영역	목표	수준	기대수준
3 level (초등5-6 학년만 11-12세)	창작	주제를 무용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체험/이해	주제를 선정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탐구/발견	주제를 탐구하고 움직임을 발전시킬 수 있다.
			확장/응용	타교과와 연계하여 움직임을 확장할 수 있다.
	감상	무용을 감상하고 형식과 특징을 발견한다.	체험/이해	다양한 무용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토론할 수 있다.
			탐구/발견	다양한 무용을 감상하고 무용의 형식과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
			확장/응용	타교과 속에 나타난 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소통	움직임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체험/이해	움직임을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다.
			탐구/발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움직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확장/응용	생활 속에서 무용의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2006)에 의하면 70% 이상의 국가에서 무용, 드라마, 조각을 예술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⁹⁾

미국의 뉴욕시 교육부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에 ‘블루프린트’를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무용, 음악, 연극, 시각 예술, 영상 필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블루프린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용교육과정은 2, 5, 8, 12학년을 기준으로 하며, 체계적인 무용 경험을 통한 신체적, 사회·정서적, 인지적, 미적, 초인지적(Metacognitive)기술과 이해의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블루프린트’는 다섯 가지의 무용학습 요소(영역)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래와 같다.²⁰⁾

- (1) 무용 만들기(Dance Making)
- (2) 무용 문해력 계발(Developing Dance Literacy)
- (3) 관련성 만들기(Making Connections)
- (4) 지역사회와 문화적자원과의 협력(Working with Community and Cultural Resource)
- (5) 경력(직업)탐구와 평생학습(Exploring Careers and Lifelong Learning)

19) 김화숙 외(2010), p. 96, 재인용.

20) 서예원 외(2011), pp. 27-36.

위의 제시된 다섯 가지의 무용학습 요소는 ‘무용 만들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상호 연계된 요소이다. 즉, ‘무용 만들기’는 깊이 있는 무용학습의 제공을 위해 나.부터 마.까지의 네 가지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공한다.²¹⁾

- 무용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 무용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비판적인 통찰력을 기르는 것.
- 무용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관련성을 만들어 내는 것.
- 다른 예술이나 학문 분야, 과학 기술, 건강을 무용을 통해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것.
- 학교교직원 및 뉴욕시, 다른 지역의 무용 문화 단체와 함께 무용학습에 참여해 보는 것.
- 평생 학습자로서 무용에 참여하고, 무용을 지지하는 것.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에서는 1-8학년에서는 무용, 드라마, 음악 및 시각 예술이 제공되며, 9-10학년에서는 무용, 드라마, 통합예술, 매체예술, 음악, 시각 예술이, 11-12학년에서는 무용, 드라마, 예술안의 탐구와 창작, 매체예술, 음악, 시각예술 등이 각각 제공된다. 퀘벡주에서는 예술교육과정에 드라마, 시각예술, 무용,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²²⁾

호주의 경우, 2012년 최종 개발된 예술교육과정에 무용, 드라마, 매체예술, 음악, 시각예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예술교육과정에 무용, 드라마, 음악-음향예술, 시각예술이 제공된다. 1-8학년까지는 위의 네 가지 영역의 예술과정이 모두 필수 이수 과정으로 편성, 9-10학년에서는 최소 두 가지 영역을, 11-13학년에서는 최소 한 가지 영역을 이수해야 하는 선택과정으로 제시된다.

이상과 같이 무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술교과로서 가르쳐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무용이 우리나라와 같이 체육교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무용을 독립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GCSE(Secondary 졸업시험)에서 무용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용수업이 상당히 심도

21) 앞의 책, p. 29.

22) 앞의 책, p. 31.

있게 행해진다. 또한 이 시험성적이 대학 입학시험에 반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무용 수업이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무용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IV. 초등무용교육의 과제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 감성의 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장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그 본래의 가치를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신체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무용은 현대인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표현방법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 중 많은 이들이 창의성과 관련해서 무용수업의 가치를 인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용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러한 초등무용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주지교과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예체능 교과에 대한 기피현상이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되면 예체능 수업을 줄이고, 특히 일제평가가 있는 몇 달간은 주지교과 위주로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체능 수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이 예술교과가 아닌 체육교과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용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육현장 적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무용은 1-2학년에서는 예체능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3-6학년에서는 ‘체육’ 교과의 한 영역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예술교과에 음악, 미술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예술 영역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초등무용교육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초등교사의 무용교육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행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무용은 체육교육과의 한 영역으로 교육

23) 서예원(2003), p. 60.

되고 있고, 교육과정의 균형상 많은 시수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대학에서 2-4학점의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무용교육 역량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 나간 초등교사들은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기 보다는 수행평가만을 위한 무용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무용수업을 예술교육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무용 기술, 테크닉 위주의 기능교육으로만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수업기회의 부실화 현상은 무용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은 사회현상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즉, 무용교육 외부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무용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무용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제적 방안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무용수업이 예술교육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무용은 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무용기술이나 움직임 테크닉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아동들의 자유로운 움직임 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이것은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예비교사교육에서의 무용교육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초등교사들이 무용테크닉을 '할 줄 몰라서' 안가르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무용교육 관련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용과 타교과, 타매체, 타수업과의 통합, 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의 예술통합 교육과정은 차시별 분절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차시 안에서도 다양한 예술통합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무용과 음악, 미술이 통합될 수도 있고, 무용과 타예술 영역(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용과 미디어를 이용한 통합 수업, 무용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교과와의 통합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콘텐츠의 개발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강화시키며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용교육 관련 다양한 교수, 학습 매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스카프, 바디샷스, 낙하산 등의 소도구 뿐 만 아니라 무용교구, 무용교육 동영상, 무용음악의 기록 및 저장 등의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실제수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무용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될 수 있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용문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규수업 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및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무용활동에 쉽게 노출되고 참여함으로써 무용에 익숙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무용활동 체험을 통해 무용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무용수업을 통해, 다양한 무용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단절된 관계를 소통하고, 개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술교육의 목표이다. 무용교육,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_____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체육』.
- 김정운(2011). 『노는 만큼 성공한다』. 서울: 21세기북스.
- 김화숙(2004). 초중등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과 방향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5(2): 1-14.
- 김화숙 외(2010). 『무용교육의 힘』. 서울: 댄스뷰.
- 로버트 루트벤스타인(1999). 『생각의 탄생』. 박종성(역),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 마가렛 도블러(1964). 『창조적 경험으로서의 춤』. 성미숙(역), 서울: 현대미술사. 1994.
- 박용현(2011). 『책은 도끼다』. 서울: 북하우스.
- 서예원(2012). 초등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

료집』.

서예원, 김윤진, 문영, 조은숙(2011). 『문화예술교육 표준 개발 연구-무용』.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테레사 퍼셀(1994). 『어린이들을 위한 무용교육』. 김두련(역), 서울: 금광. 2001.

황연주, 서예원, 정연희, 이병준, 김용희(2004). 『초 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김남은(2011). 한국과 미국의 초등 무용교육과정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경(2011). 초등무용교육의 교과내용 및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예원(2003).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인식 및 운영실태 조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4(2): 1-26.

_____(2009).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20(1): 59-76.

송진아(2012). 『한, 미 초등무용 교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 전주교육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anna, L. Judith(2001). The Language of Dance. *JOPERD*, 72(4): 10-22.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15일
심사일		1월 16일
심사완료일		1월 20일

Prospects and Agenda for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Suh, Yewon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eeds of art education and suggest the value and function of dance education as an art education, and propose the agenda for activation of dance education.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has two important meanings: First, it helps elementary students to develop cognitive, temperamental, physical, and social abilities to convey their ideas and feelings by movements and second, it is above all a creative art education.

Based on these values, this article presents the current conditions of dance educ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suggests a few agenda to proliferate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First,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for now is not independent of physical education as a curriculum. It should gain its independence from physical education to recover its own educational values as an art and aesthetic education.

Second, It should develop diverse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educational contents of dance education. And It should develop diverse teaching-learning media of dance education, dance image data and record dance music.

Third, dance and dance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to various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such as extra-curricula, experience learning, specialty and aptitude classes.

After all, the purpose of an art education is cultivate creativity and imagination, communicate the relationship and complete the individuality through dance education.

keywords: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초등무용교육), Prospects(전망), Agenda(과제), Dance Curriculum(무용교육과정), Art Education(예술교육)